

빈티지 패션의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 2003~2008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

양정희* ·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Vintage Fashion
- Focused on Paris Prêt-à-Porter Collections, from 2003 to 2008 -

Yang, Jung-Hee* · Park, Hye-Won
M.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 of Clothing and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Vintage fashion is a lot influenced by colors because an emotion is transmitted via images of “old feeling”, “worn-out feeling” and “faded feeling”etc. Colors are visual sensation occurring at a time when lights stimulate an eye, which is a representative factor which humans first perceive when they touch objects. And colors in clothing function as a critical element which indicates an individual's impression and character as well as aesthetic sensation.

In this study, I examined on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via the previous literature on vintage fashion and colors. As an empirical study, I investigated on the colors of vintage fashion appearing in Prêt-à-porter Collections, Paris from Spring/Summer, 2003 to Fall/Winter 2008. As a way for study, I investigated into the total 197 vintage fashion photos and calculated their RGB values by using photoshop. And I converted the values of the colors extracted into H V/C values by using Munsell Conversion Version 9.0.6 and analyzed on Munsell System of 10 Color Notation and the PCCS colors, classifying a color scheme by visual sensation measurement.

The result of analyzing on the concept of vintage fashion and its color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Vintage fashion made an appearance the most in 2003 and 2004 and its colors appeared a lot in Y, YR, R and PB lines. Color tone concentrated on black and white, achromatic color and low chroma colors in a grayish line, chromatic color. Thus, the study

⁺ 본 연구는 (주)세경의 지원(의류 색채 연구 기반 조성 목적기탁기금)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Yang, Jung-Hee, Tel.+82-55-213-2724, Fax.+82-55-213-2724
E-mail: yangssi408@naver.com

found that colors suitable for a “worn-out”, “faded” and “old” image are properly reflected in vintage fashion rather than a clear and bright background. In a color scheme, I found contrast color and same color appearing a lot, which gave an unharmonious feeling and a smack of the country.

The study reveals that the color characteristic of vintage fashion is relatively diverse and complex in color, color tone or shade and color scheme, which shows a color trend which reflects a non-constructive and complex coordination characteristic instead of a standardized simple and clear image.

Key Words : vintage fashion(빈티지 패션), fashion trends(패션 트렌드), color study (색채 연구), color analysis(색채 분석)

1. 서론

친환경 트렌드의 추구에 따라 패션 분야에서는 과거를 동경하고 파괴된 환경 속에서의 보호 심리로 새것이 아닌 낡고 친숙한 구제품에 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디자인과 분위기 감각은 그대로 가져오되 기능적인 면을 추가로 표현한 형태로서 빈티지(Vintage)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다¹⁾.

빈티지 패션(vintage fashion)은 과거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새롭게 바꿔서 백화점이나 전문점에서 파는 것을 말하며 빅토리아 시대, 에드워드 시대, 또는 1920년대 옷과 구슬 백이나 오래된 장신구를 같이 착용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경향을 빈티지 룩이라 불렀고, 그 이전에는 벼룩시장 룩(flea market look)이나 애틱 룩(attic look)이라고 불렀다²⁾. 패션에서의 빈티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과거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현대 패션에 이용하는 재활용 패션과 과거 특정 시대의 스타일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재생 패션 또는 재현 패션으로 나눌 수 있다³⁾.

따라서 빈티지는 과거의 오래된 골동품성(old), 남이 착용했던 낡은 중고성(second hand), 그 존재의 시대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는 진품성(authentic), 자기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희소성(unique),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식성(out-of-mode)을 갖고 있는 ‘찾아낸 패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트렌드에 있어 실제로 낡은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미지를 따온 패션 역시 빈티지 패션의 확장

된 개념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경향이다⁴⁾.

패션 분야에서 빈티지는 할머니의 처녀시절 옷장에서 빌려온 듯한 케케묵은 구식 스타일로 1980년대 이후 부각되어 오며⁵⁾ 꾸준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인기를 얻어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색이 바래거나 구겨진 옷들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아메리칸 빈티지 룩’이라고 하는데, 활동적이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로 청소년들이 즐겨 입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전후 해 ‘촌티 패션’, ‘일본풍의 헌 옷 패션’에 뒤이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빈티지 패션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행경향이다⁶⁾. 또한 2003~2004년에는 해외 컬렉션에 빈티지 패션이 등장하면서 유행되었고, 국내에서는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의 빈티지 숍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었다⁷⁾. 특히 2003년에 나타난 빈티지를 ‘럭셔리 빈티지’, ‘로맨틱 빈티지’로 표현⁸⁾⁹⁾¹⁰⁾하고 있으며, 그 해의 최신 유행으로 평가¹¹⁾¹²⁾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해외 컬렉션에서도 안나 수이(Anna Sui),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 라 비아조티(Laura Biagiotti), 유키 도리(Yuki Tori), 루이 비통(Louis Vuitton)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빈티지 경향의 디자인을 내 놓고 있어¹³⁾ 빈티지의 트렌드는 스트리트 패션과 하이패션에서 모두 나타나 명실 공히 21세기 패션 트렌드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인정된다.

중고 스타일, 혹은 빈티지 드레스는 2차 대전 이후의 하위문화사의 맥락에서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 하위문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스타일을 위한 재료로서, 베퉁시장에서 구입한 중고 의류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⁴⁾. 빈티지 패션의 흐름을 보았을 때 빈티지 패션의 등장 배경 속에는 부유한 상류층에 대한 동경에 따른 동조의 시각이 있었는데 반해, 20세기부터의 빈티지 스타일은 기성 세대에 대한 강한 반발, 반물질주의의 저항의식이 숨 쉬고 있다¹⁵⁾.

특히 이렇게 시작된 중고 의류에 대한 활용은 2차 대전 이후 기존의 가치와 형식에 반항적이고 공격적 성향을 띄는 젊은 세대의 안티 패션(anti-fashion)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별로 안티 트렌드의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유사성을 갖는데 1960년대 히피, 보헤미안 룩, 1970~1980년대의 펑크, 1990~2000년대 그렌지, 네오히피, 그리고 21세기에 와서는 빈티지로 많이 사용되어졌다¹⁶⁾. 시대별로 용어는 다르지만 유사성을 갖는 빈티지 패션은 낡은 듯하지만 멋스러운, 옛것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상으로 현재 많은 스타일 리더들에 의해 애용되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개념을 정리하여 21세기 패션에 나타나는 빈티지 패션의 이미지를 규정하자면 「낡은 듯한 이미지」, 「바랜 듯한 이미지」, 「오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느낌, 진품의 느낌, 희소성의 느낌의 패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빈티지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¹⁷⁾¹⁸⁾¹⁹⁾²⁰⁾는 그동안 디자인 개발 중심으로 제한되어 연구되어지고 있거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그 특성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유행의 파급 효과를 볼 때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색채 연구 측면은 부족한 상황이다.

빈티지 패션의 경우 ‘오래된 느낌’, ‘낡은 느낌’, ‘바랜 느낌’ 등의 이미지를 통해 감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색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미지 형성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채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빈티지 패션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최근의 패션 색채관련 연구동향으로는 최신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세퍼레이션(seperation) 색채 코디

네이션의 특성을 한국 표준색 도감을 사용하여 색상과 톤 분석을 실시한 연구²¹⁾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전통 색채와 연계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본풍 에스닉 룩의 색채 특성을 분석한 연구²²⁾가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따른 색채 활용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국과 일본의 전통극인 창극과 가부키에서 활용되는 의상의 색채 특성을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오방색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²³⁾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대 여성복에서 남성성이 가장 잘 드러난 아이템인 여성 수트의 배색 분석을 통해 여성복에서 남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색채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²⁴⁾도 진행되었다. 이상의 최근 연구들은 컬렉션 사진이나 전통 이미지 사진 등에서 색채를 수집하여 Photoshop, Munsell conversion 8.0.3을 활용하여 색상, 색조, 3차원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최근 들어 색채에 대한 주관적 분석, 내용 분석 보다는 체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 연구가 지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03년 S/S부터 2008년 F/W까지의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빈티지 패션의 색채를 색상, 색조, 배색의 관계로 분석하여 빈티지 패션의 색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빈티지 패션 작품 사진 총 197장을 대상으로 photoshop을 사용하여 RGB 값을 구하였다. 추출된 색채는 Munsell Conversion Version 9.0.6을 사용하여 H V/C값으로 변환하고 먼셀의 10색상 체계와 PCCS 색조로 분석하고 또한 시각측정에 의한 배색을 분류하였다. 이는 빈티지 패션 연구의 다양화와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빈티지 패션의 미적특성

빈티지 패션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2001년 이후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유형에 따라 연구 대상 및 내용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디자인 개발 관련 빈티지 패션의 연

구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거나 디자인이 실제로 개발 되어진 연구²⁵⁾²⁶⁾²⁷⁾²⁸⁾가 있다. 빈티지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경우 의상 사진을 대상으로 시각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내용으로는 빈티지 제품의 조형적 특성 연구²⁹⁾, 대중매체와 영상물과 관련된 의상 분석 연구³⁰⁾³¹⁾, 디자이너 의상 연구³²⁾³³⁾,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³⁴⁾³⁵⁾, 그린, 로하스 등 환경과 관련된 디자인 분석 연구³⁶⁾ 등이 나타났다. 디자인 특성 분석 연구가 빈티지 패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학적 특성 연구³⁷⁾³⁸⁾³⁹⁾는 빈티지 패션의 미의 상징성 및 특성 이론 연구로 진행되었다. 즉 빈티지 패션의 미적 특성은 수공예성, 진품에 대한 열망, 희소성, 낡음의 미학, 유희성, 리사이클링성, 재현성, 의외성 등으로 규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이처럼 국내 빈티지 패션 관련 연구 동향은 빈티지의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미적 특성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색채 중심의 연구는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색채 이론

1) 색의 속성

모든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명칭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성질, 즉 색상·명도·채도를 색의 삼속성, 또는 색의 삼요소라고 한다.

색상(hue)이란 일반적으로 색이 가지는 성질을 말하며, 색을 구별하기 위한 색의 명칭으로 쓰인다. 명도(value, lightness)는 색의 삼속성 중에서 색의

<표 1> 선행연구에 따른 빈티지 패션의 미적 특성 내용

특성	내용
수공예성	·빈티지가 주는 ‘숨겨진 고급스러움(hidden luxury)’ 즉 손바느질 된 디테일, 뛰어난 테일러링 등의 수공예성 ·문화적 가치 창출
진품열망	·여피의 등장, 1980년대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과시적 소비에 사로잡힌 스노비즘적 발상에 의해 ‘진짜’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접근하는 빈티지 고객층의 속성 ·로고, 라벨의 중요성은 명품성, 진품성에 근거한 현대인의 속물근성의 표출 중 하나
희소성	·패션을 통한 자아표현의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독점할 수 있는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일 추구 ·한 벌 밖에 없다는 빈티지 상품의 희소성은 소비자의 구미 자극 ·희소한 디자인을 발견 했다는 쾌감은 빈티지의 기저에 담겨 있는 일종의 취향
낡음의 미학	·빈티지의 낡은 중고성은 새로운 ‘낡음’의 미학 속에서 시선을 이끌어 냄 ·옛것에 대한 향수는 과거를 성실하게 재창조재현하고자 하는 욕구 투영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현재를 잠시 잊어보려는 현실 도피적인 심리적 갈구
유희성	·현대의 촌티 트렌드와 발맞추어 편안함과 웃음을 주는 매력으로 등장 ·느린 템포의 여유를 즐기려는 현대인의 심리 투영 ·사적 친밀성을 요구하는 현실 반영 ·발전하는 문화에 대한 반문화 현상 ·인간 사고의 정지현상
재생	·1960년대 이래로 환경과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은 재생에 대한 관심 유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사회적 잉여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 ·생태학적 이상주의를 내재 ·새로운 패션의 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됨
재현성	·어머니나 할머니의 옷장에서 꺼낸 듯한 구식의 스타일을 재현해 현대의 자극적이고 급속히 순환하는 트렌드 속에서 일종의 포근함과 친근함으로 작용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
의외성	·서로 다른 감성이 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부조화의 감성 결합이 의외로 매우 잘 조화를 이룸 ·‘부조화 속의 조화’ 창출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것은 시각 반사율의 고저를 말하며, 채도(chroma, saturation)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의미한다.

2) 먼셀의 색채 체계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연구가인 먼셀(Albert. H. Munsell. 1858~1918)이 1905년에 고안한 체계로서 사람의 시각(視感)을 기반으로 색을 분류하는 체계로서, 모든 색채를 색의 3속성인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로 표기하였고, 색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하고 표기법에 따라 색채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먼셀의 색상환은 기본색의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파랑(Blue), 보라(Purple)의 다섯 가지 색상과 주황(Yelloe Red), 연두(Green Yellow), 청록(Blue Green), 남색(Purple Blue), 자주(Red Purple)의 중간색과 기본 색상과 중간 색상을 각각 10등분하여 총 100가지 색상을 기호 앞에 숫자로 표시하는 세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⁰⁾<그림 1>⁴¹⁾. 먼셀의 명도 단계는 순수한 검정을 0, 순수한 백색을 10으로 표기하며 그 사이를 아홉 단계의 무채색으로 나누어 총 열한 단계로 구분한다. 수정 표색계에서는 화학적 안료로 반사율 0퍼센트인 검정과 100퍼센트인 흰색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1~9.5의 기호를 사용하고, 명도 단위 앞에 중성색의 N을 붙여 N1~N9.5로 표기 한다. 채도 단계는 명도 단계인 1~9의 무채색을 기본 축으로 하여 채도의 시작점을 0으로 표기하고 색의 순도가 증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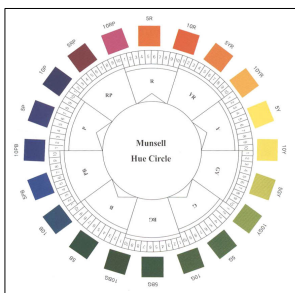
수록 1~14단계로 표기한다. 그러나 색상별로 채도 단계가 다르므로 순색 빨강은 가장 많은 14단계로 표기되는 반면 청색은 8단계로 가장 적다⁴²⁾<그림 2>⁴³⁾.

먼셀의 기호 표기법은 색상을 휴(Hue), 명도를 벨류(Value), 채도를 크로마(Chroma)라 하였으며, 이것을 표기하는 순서는 H V/C이다. 빨강의 순색을 예로 들면 4/14로 적고, 읽는 방법은 5R 4의 14로 읽는데, 이것은 색상이 5R, 명도가 4, 채도가 14라는 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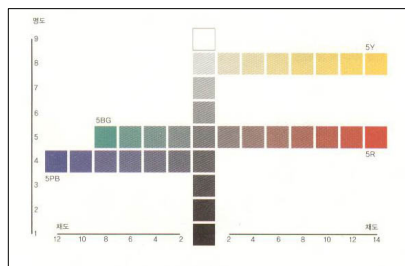
3) PCCS 색조 체계

일본색채연구소가 1964년 발표한 일본색연배색체계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 약칭 PCCS)는 색채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러 시스템이다. 이 체계는 톤(tone)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배색 조화를 얻기가 쉽고 계통색명과도 대응시킬 수 있어 일본에서는 디자인계와 교육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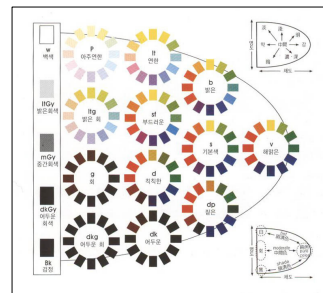
톤(tone)의 분류는 아주연한(pale), 연한(light), 밝은(bright), 밝은 회(light grayish), 부드러운(soft), 회(grayish), 칙칙한(dull), 기본색(strong), 해맑은(vivid), 어두운 회(dark grayish), 어두운(dark), 짙은(deep)의 12단계와 무채색의 배색 W(White), 밝은 회색 ltGy(light Gray), 중간 회색 mGy(medium gray), 어두운 회색 dkGy(dark Gray), 검정 Bk(Black)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그림 3>⁴⁶⁾.



<그림 1> 먼셀의 20색상환
-Color Revolution, p. 27.



<그림 2> 먼셀의 명도와 채도
-색채지각론과 체계론, p. 96



<그림 3> PCCS 색조 분류도
- Color Revolution, p. 23.

4) 패션 배색원리

의복 디자인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켜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배색이라 한다. 배색의 원리는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원리와 색조(tone)를 기준으로 한 배색원리로 나누어진다⁴⁷⁾.

(1) 색상 배색

색상을 기준으로 하는 배색으로는 동일색상 배색, 인접색상 배색, 섹스타드(sextard) 배색, 이색(quadrat) 배색, 분보색(splitecomplementary) 배색, 보색(complementary) 배색 등이 있다. 동일색상 배색은 색상환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0°배색이고 인접색상 배색은 색상환에서 근접한 위치에 있는 색상의 30°배색이며 섹스타드 배색은 색상환에서 색상의 차이가 60°인 배색이다. 이색 배색은 색상환에서 90°의 배색이고, 분보색 배색은 보색이 양옆에 위치한 색과의 150°배색이며 보색 배색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에 위치한 180°배색이다.

(2) 색조 배색

색조(tone)를 기준으로 하는 배색 원리는 도미넌트(dominant) 배색, 톤 온 톤(tone on tone) 배색, 톤 인 톤(tone in tone) 배색, 세퍼레이션(seperation) 배색, 그라데이션(gradation) 배색, 액센트(accent) 배색, 콘트라스트(contrast) 배색, 콤플렉스(complex) 배색 등이 있다. 도미넌트 배색 이론은 공통된 색의 요소에서 통일된 분위기를 만드는 배색이고, 톤 온 톤 배색 원리는 톤 변화를 크게 둔 동일 색상의 배색이며, 톤 인 톤 배색 원리는 동일, 유사톤에서 색상의 변화를 준 배색이다. 세퍼레이션 배색 원리는 배색의 중간에 세퍼레이션 컬러를 넣어 분리시키는 배색이고 그라데이션 배색은 다색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배색이다. 또한 액센트 배색은 배색에 액센트가 되는 색을 조합한 배색이고, 콘트라스트 배색은 대조적인 성질의 색을 조합하는 배색이며, 콤플렉스 배색은 의외성이 있는 색 구성의 배색이다.

III. 연구절차 및 방법

1. 자료 수집 및 대상

본 색채 연구는 www.style.com에서 제공하는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파리 컬렉션은 타 컬렉션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영향력 있는 컬렉션으로 인정되며 정보 수집이 일관성이 있고 용이하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빈티지 패션의 색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범위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도 지적했듯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동시에 국내 논문경향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을 근거로 하여 2003년 S/S에서 2008년 F/W까지 총 6년 동안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이다.

2. 절차 및 분석 방법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출품한 디자이너 총 77명의 작품 사진, 23,933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로 본 연구자가 ‘낡은 듯한 이미지’, ‘바랜 듯한 이미지’, ‘오래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수공예적 특성, 낡음의 미적 특성, 리사이클링적 특성, 의외성, 유희적 특성 등의 선행 연구의 빈티지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진 266장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사진은 사이즈 5×7 사이즈로 인화하여 자극물을 구성하였고 이를 패션 디자인 대학원 이상의 전공자로 구성된 평가 집단 5인에게 제시하여 2차로 266장의 사진 중 최종 197장을 추출하였다.

1) 빈티지 패션의 색상, 색조 분석

최종 수집된 사진 197장의 색상 분석은 Photosho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300dpi의 해상도에서 분석을 하였으며 아이드로퍼 툴(eyedropper tool)을 사용하여 RGB 값을 구하였다. 추출된 색채는 Munsell Conversion Version 9.0.6을 사용하여 측색된 RGB 값을 H V/C값으로 변환하고 먼셀의 10색상 체계로

분석하였다. RGB값을 H V/C값으로 변환한 값은 Munsell Conversion 프로그램과 연계된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으며 연도에 따른 시즌별로 나누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티지 패션의 색조 분포는 PCCS를 기준으로 하여 명도, 채도 값에 따라 톤 맵에 위치를 선정하여 색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도와 채도 값은 Munsell Con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먼셀 값을 PCCS에 대입하였다.

색상은 실제 의상이 아닌 웹상의 사진에서 색상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같은 컬러의 색상이 패션쇼의 조명이나 의복의 구김으로 인한 명암 차이 등의 여러 요인으로 색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웹을 통한 색채 수집이 인쇄 상태의 색채를 수집하거나 측색기를 사용한 색채 수집보다 정확도나 신뢰성이 높아 선행 연구⁴⁸⁾⁴⁹⁾⁵⁰⁾에서 활용된 것에 근거하여 웹에서 직접 색채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웹상의 색상 차이는 시각적으로 중간색이라 판단되는 부분의 컬러를 추출하였고 의복의 70~80%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색상을 중심으로 선택하였으며 액세서리, 장식 등의 색상은 제외시켰다.

2) 빈티지 패션의 배색 분석

배색은 통합적이며 전문가의 시각적 감각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선행연구⁵¹⁾⁵²⁾의 방법을 토대로 하여 전체를 통합적 감각으로 스캔하여, 시감측정 방법으로 배색을 분석하였다. 배색 분석은 연도별, 시즌별로 나누고, 색상 배색 기준(동일·유사대조)과 색조 배색 기준(동일·유사대조)에 사진을 대입하여 빈도 분석과 내용 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색상 분석

빈티지 패션의 색상을 포토샵에 의해 수집한 결과 총 552색상이었다. 그 중 S/S 시즌은 199색상(36%), F/W 시즌은 353색상(64%)으로 분석되었다. 연도와 시즌에 따른 색상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도와 시즌은 03년 F/W 시즌에 152 색상으로 가장 많은 색상이 나타났고, 04년 F/W 시즌에 89색상, 06년 F/W 시즌에 60색상, 04년 S/S 시즌에 57 색상으로 다른 연도 시즌에 비해 많은 색상이 분석되었다.

<표 2> 연도 및 시즌별 색상 분석

연도	시즌	R	YR	Y	GY	G	BG	B	PB	P	RP	합계
2003	S/S	7	6	17	1	·	·	·	1	1	1	34
	F/W	31	28	45	8	1	3	5	12	7	12	152
2004	S/S	4	12	18	1	·	2	·	10	8	2	57
	F/W	18	17	19	8	4	1	7	9	4	2	89
2005	S/S	4	5	4	1	·	1	2	7	2	1	27
	F/W	4	6	1	4	1	1	5	3	·	1	26
2006	S/S	5	4	5	1	2	1	2	8	5	11	44
	F/W	4	11	15	5	2	1	·	7	6	9	60
2007	S/S	1	6	12	·	·	·	·	·	·	·	19
	F/W	·	2	7	·	·	·	·	1	·	·	11
2008	S/S	·	1	3	2	1	·	1	10	·	·	18
	F/W	·	6	2	·	1	1	1	2	1	1	15
합계		79	104	148	32	12	11	23	70	34	39	552
빈도(%)		14.1	18.8	26.8	5.8	2.2	2.0	4.2	12.7	6.2	7.2	100

03년 F/W는 Y, R, YR 색상 순으로 많은 출현을 보였고, 04년 S/S는 Y, YR, PB, R 색상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04년 F/W는 Y, R, YR, PB 색상 순으로 많이 출현했고 06년 F/W는 Y, YR, PB, R 색상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S/S 시즌의 색상은 Y 계열이 29.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PB 계열이 18.1%, YR 계열이 17.1%로 많이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GY, G, BG, B 계열은 5% 미만의 미비한 결과를 얻었다. F/W 시즌은 R 계열이 32.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Y 계열이 25.2%, YR 계열이 19.8%로 많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G, BG 계열은 5% 미만의 미비한 결과를 보였다<표 3>.

빈티지 패션의 전체 색상 분포는 R, YR, Y, PB 계열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Y 계열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YR 계열이 18.8%, R 계열이 14.1%, PB 계열이 12.7%로 난색계의 색상이 많이 밀집 되어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G, BG, B 계열 즉, 한색계의 색상은 미비한 출현을 보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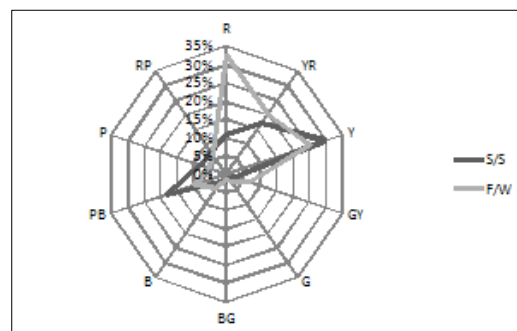
S/S 시즌은 Y > PB > YR > R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F/W 시즌은 R > Y > YR > PB 순으로 나타나 R 계열과 PB 계열에 있어 시즌에 따른 차이가 있다. Y 계열은 S/S 시즌과 F/W 시즌에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F/W 시즌에는 R 계열이 강세였고, S/S

<표 3> 빈티지 패션 시즌별 색상 빈도

시즌 연도 색상	S/S								F/W							
	'03	'04	'05	'06	'07	'08	합계(n)	빈도 (%)	'03	'04	'05	'06	'07	'08	합계 (n)	빈도 (%)
R	7	4	4	5	1	·	21	10.6	31	18	4	4	·	57	114	32.3
YR	6	12	5	4	6	1	34	17.1	28	17	6	11	2	6	70	19.8
Y	17	18	4	5	12	3	59	29.6	45	19	1	15	7	2	89	25.2
GY	1	1	1	1	·	2	6	3.0	8	8	4	5	1	·	26	7.4
G	·	·	·	2	·	1	3	1.5	1	4	1	2	·	1	9	2.5
BG	·	2	1	1	·	·	4	2.0	3	1	1	1	·	1	7	2.0
B	·	0	2	2	·	1	5	2.5	5	7	5	·	·	1	18	5.1
PB	1	10	7	8	·	10	36	18.1	12	9	3	7	1	2	34	9.6
P	1	8	2	5	·	·	16	8.0	7	4	·	6	·	1	18	5.1
RP	1	2	1	11	·	·	15	7.5	12	2	1	9	·	1	25	7.1
합계	34	57	27	44	19	18	199	100	152	89	26	60	11	15	353	100



<그림 4> 빈티지 패션의 색상 분포



<그림 5> 시즌별 빈티지 패션의 색상 분포

시즌에는 PB 계열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등장한 빈티지 패션의 전체적인 색상은 Y, YR, R, PB 계열이 많았고, G, B, BG 계열은 낮은 분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즌에 따라 보았을 때 R 계열과 PB 계열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시즌에 따라 빈티지 패션의 색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색조 분석

색조 분포는 무채색 계열과 유채색 계열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무채색은 194색조 35%로 나타났고 유채색 계열은 358색조 65%로 유채색 계열이 많이 나타났다.

1) 연도별 색조 분석

연도 및 시즌별 색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도에 따른 시즌별 색조 경향을 보면 03년 F/W, 04년 S/S, F/W, 06년 F/W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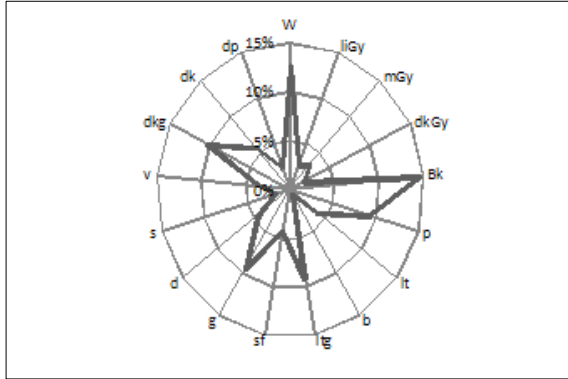
무채색 계열에서 흰색과 검정이 각각 12.5%와 14.7%로 많이 나타났으며 ltGy(2.7%), mGy(3.4%), dkGy(1.8%)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유채색 계열에서는 p(9.4%), ltg(9.4%), g(9.2%), dkg(10.3%)등 저채도 류의 색조가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lt(3.8%), b(0.5%), sf(4.3%), d(4.5%), s(1.6%), v(3.4%), dk(5.8%), dp(2.8%) 등의 중·고 채도 색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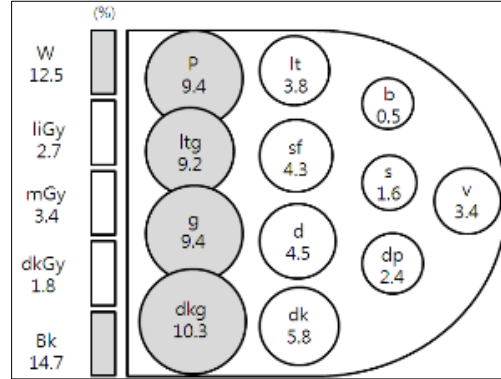
빈티지 패션의 색조는 Bk > W > dkg > g, p > ltg 순으로 많이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dk > d > sf > lt > mGy > liGy > dp > dkGy > s > b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무채색 White와 Black 계열과 유채색의 저채도 grayish 계열에서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6>. 이와 같은 결과는 빈티지 패션의 ‘낡은 듯한 이미지’, ‘바랜 듯한 이미지’, ‘오래된 이미지’와 상통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표 4> 빈티지 패션의 연도별 전체 색조 빈도

연도 시즌 색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n)	빈도 (%)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W	4	13	15	7	1	2	4	13	2	1	3	4	69	12.5
liGy	.	3	2	1	1	.	.	1	3	2	1	1	15	2.7
mGy	.	3	4	4	1	1	.	1	1	1	1	2	19	3.4
dkGy	.	4	.	3	1	.	.	2	10	1.8
Bk	10	29	7	12	5	3	10	1	.	1	.	3	81	14.7
p	2	12	14	8	2	2	2	5	3	1	1	.	52	9.4
lt	.	5	2	3	2	.	5	4	21	3.8
b	1	1	1	3	0.5
ltg	3	18	.	8	2	4	2	7	0	3	3	1	51	9.2
sf	3	11	.	2	1	.	.	3	2	.	2	.	24	4.3
g	1	9	3	15	5	3	8	3	2	1	1	1	52	9.4
d	1	9	1	2	1	3	1	4	2	.	1	.	25	4.5
s	.	2	2	.	.	1	1	2	1	.	.	.	9	1.6
v	2	5	.	7	1	.	3	1	19	3.4
dkg	3	21	2	12	4	1	3	5	1	.	4	1	57	10.3
dk	3	5	5	5	.	5	2	4	1	1	1	.	32	5.8
dp	1	2	.	.	1	1	3	5	13	2.4
합계	34	152	57	89	27	26	44	60	19	11	18	15	552	100



<그림 6> 빈티지 패션의 색조 분포



<그림 7> PCCS에 대입한 빈티지 패션의 색조 분포

이상을 종합해보면 빈티지 패션 색조의 명도는 유채색 계열에서 골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채도는 저채도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채도와 중채도의 빈도는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그림 7>.

2) 시즌별 색조 분석

빈티지 패션의 색조가 계절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즌별 색조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분포와 같이 W, Bk, p, Itg, g, dkg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 S/S 시즌은 흰색과 검정이 각각 14.6%, 16.1%를 나타내었고, 유채색 계열은 p(12.1%), g(10.1%), dkg(8.5%)색조를 나타내어 저채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W 시즌은 흰색과 검정이 각각 11.3%, 13.9%를 나타내었으며 유채색 계열은 Itg(11.6%), g(9.1%), dkg(11.3%)색조를 나타내어 저채도와 중·저명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S/S 시즌과 F/W 시즌은 p와 Itg색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S/S 시즌은 Itg 색조가 5%로 적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F/W 시즌에는 p색조가 7.95%로 다른 색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그림 8>. 이와 같은 결과는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무채색 계열은 전체 552색조에서 194색조가 분석되었는데 black, white, mGy, liGy, dkGy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계열은 유채색과 달리 고명도와 저명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빈티지 패션의 유채색별 색조 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색상 분석에서 많이 나온 R, YR, Y, PB 계열에서의 색조를 살펴보면 R 색상은 vivid, grayish, dark, deep 색조 순으로 나타났다. R색상이 vivid 계열에서 많이 보였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전체적인 색조 분석에서 저채도에 집중되었던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R 색상의 vivid 계열이 주로 체크무늬의 작품에서 수집된 영향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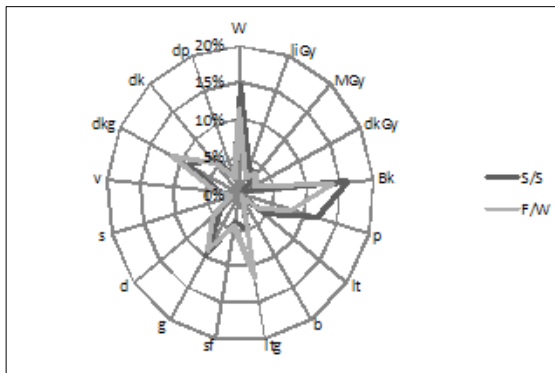
YR색상은 pale(2.8%), light(2.2%), light grayish(2.2%), grayish(2.5%), dark grayish(3.6%) 색조에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light 색조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색조 분포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YR 색상은 저채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Y색상은 pale(7.5%), light grayish(5.3%), grayish(3.6%), dark grayish(3.1%)색조에서 많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빈티지 패션의 색조 분포와 일치하며 색조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pale과 light grayish 색조가 많은 비율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Y 색상은 저채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PB 색상은 grayish(2.2%), dark grayish(2.2%), dark(2.2%) 색조에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같은 비율을 보였다. PB 색상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회색조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저명도, 저채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빈티지 패션의 시즌별 색조 빈도

시즌 연도 색조	S/S 시즌								F/W 시즌							
	'03	'04	'05	'06	'07	'08	합계(n)	빈도 (%)	'03	'04	'05	'06	'07	'08	합계(n)	빈도 (%)
W	4	15	1	4	2	3	29	14.6	13	7	2	13	1	4	40	11.3
liGy	·	2	1	·	3	1	7	3.5	3	1	·	1	2	1	8	2.3
mGy	·	4	1	·	1	1	7	3.5	3	4	1	1	1	2	12	3.4
dkGy	·	·	·	·	1	·	1	0.5	4	3	·	·	·	2	9	2.5
Bk	10	7	5	10	·	·	32	16.1	29	12	3	1	1	3	49	13.9
p	2	14	2	2	3	1	24	12.1	12	8	2	5	1	·	28	7.9
lt	·	2	2	5	·	·	9	4.5	5	3	·	4	·	·	12	3.4
b	1	·	·	·	·	·	1	0.5	1	·	·	1	·	·	2	0.6
ltg	3	·	2	2	·	3	10	5.0	18	8	4	7	3	1	41	11.6
sf	3	·	1	·	2	2	8	4.0	11	2	·	3	·	·	16	4.5
g	1	3	5	8	2	1	20	10.1	9	15	3	3	1	1	32	9.1
d	1	1	1	1	2	1	7	3.5	9	2	3	4	·	·	18	5.1
s	·	2	·	1	1	·	4	2.0	2	·	1	2	·	·	5	1.4
v	2	·	1	3	·	·	6	3.0	5	7	·	1	·	·	13	3.7
dkg	3	2	4	3	1	4	17	8.5	21	12	1	5	·	1	40	11.3
dk	3	5	·	2	1	1	12	6.0	5	5	5	4	1	·	20	5.7
dp	1	·	1	3	·	·	5	2.5	2	·	1	5	·	·	8	2.3
합계	34	57	27	44	19	18	199	100	152	89	26	60	11	15	353	100



<그림 8> 빈티지 패션의 시즌별 색조 분포

<표 6> 빈티지 패션의 무채색별 색조 분석

Neutral	합계(n)	빈도(%)
white	69	35.6
ltGy	15	7.7
mGy	19	9.8
dkGy	10	5.2
black	81	41.8
합계	194	100

<표 7> 빈티지 패션의 유채색별 색조 분석

Tone \ HUE	R	YR	Y	GY	G	BG	B	PB	P	FP	합계 n(%)
pale	5(1.4)	10(2.8)	27(7.5)	·	·	·	·	6(1.7)	1(0.3)	3(0.8)	52(14.5)
light	1(0.3)	8(2.2)	7(2.0)	·	1(0.3)	·	1(0.3)	1(0.3)	1(0.3)	1(0.3)	21(5.9)
bright	1(0.3)	1(0.3)	1(0.3)	·	·	·	·	·	·	·	3(0.8)
light grayish	4(1.1)	8(2.2)	19(5.3)	4(1.1)	1(0.3)	·	3(0.8)	6(1.7)	1(0.3)	5(1.4)	51(14.2)
soft	3(0.8)	6(1.7)	7(2.0)	·	1(0.3)	·	1(0.3)	3(0.8)	2(0.6)	1(0.3)	24(6.7)
grayish	8(2.2)	9(2.5)	13(3.6)	4(1.1)	1(0.3)	·	3(0.8)	8(2.2)	2(0.6)	4(1.1)	52(14.5)
dull	3(0.8)	6(1.7)	2(0.6)	·	1(0.3)	2(0.6)	5(1.4)	4(1.1)	2(0.6)	·	25(7.0)
strong	4(1.1)	1(0.3)	·	·	·	·	·	1(0.3)	2(0.6)	1(0.3)	9(2.5)
vivid	11(3.1)	2(0.6)	·	·	·	·	·	1(0.3)	·	5(1.4)	19(5.3)
dark grayish	2(0.6)	13(3.6)	11(3.1)	6(1.7)	1(0.3)	2(0.6)	4(1.1)	8(2.2)	4(1.1)	6(1.7)	57(15.9)
dark	7(2.0)	6(1.7)	3(0.8)	·	4(1.1)	1(0.3)	1(0.3)	8(2.2)	·	2(0.6)	32(8.9)
deep	7(2.0)	·	1(0.3)	1(0.3)	·	·	·	·	2(0.6)	2(0.6)	13(3.6)
합계 n(%)	56(15.6)	70(19.6)	91(25.4)	15(4.2)	10(2.8)	5(1.4)	18(5.0)	46(2.8)	17(4.7)	30(8.4)	358(100)

4. 배색 분석

1) 색상 배색 분석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은 유채색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므로 무채색은 제외하였으며 유채색에 있어 단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은 배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무채색+유채색 배색에서 유채색이 단색일 경우 배색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은 총 149벌의 작품이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표 8>.

빈티지 패션의 동일 색상 배색은 43벌 28.9%, 유사 색상 배색은 37벌 24.8%, 대조 색상 배색은 39벌로 46.3%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빈티지 패션의 색상 배색은 대조 색상 배색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연도별로 살펴보면 03년은 동일, 유사, 대조 색상 배색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04년과 05년은 대조 색상 배색이 많이 등장했으며 04년은 유사 색상 배색이 적게 보였고 05년의 동일 색상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06년은 동일, 유사 색상 배색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07년은 동일, 유사, 대조 색상 배

색이 모두 적은 분포로 나타났다. 08년은 유사 색상 배색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대조 색상 배색은 6년 모두 등장했고 동일 색상 배색은 05년을 제외하고 모두 나타났으며, 유사 색상 배색은 08년을 제외하고 모두 등장했다<그림 10>.

이상의 결과에서 전체적인 빈티지 패션의 색상 배색은 대조 > 동일 > 유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조 색상은 04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동일 색상과 유사 색상은 03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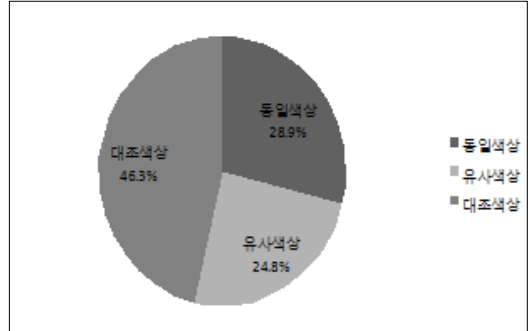
2) 시즌별 색상 배색 분석

S/S 시즌의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은 대조 색상 배색이 28벌 44.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일 색상 배색이 24벌 38.1%, 유사 색상 배색이 11벌 17.5%를 보였다. F/W 시즌의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은 대조 색상 배색이 41벌 47.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사 색상 배색이 26벌 30.2%, 동일 색상 배색이 19벌 22.1%를 보였다<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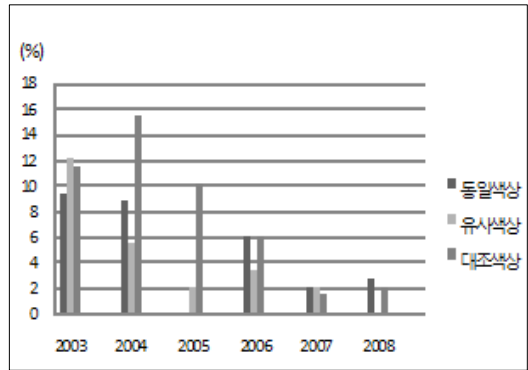
S/S 시즌의 연도별 색상 배색을 살펴보면 03년에 동일 > 대조 > 유사 순으로 나타났고 04년은 동일

<표 8> 빈티지 패션의 색상 배색 빈도

연도	시즌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대조 색상	합계
2003	S/S	6	2	4	12
	F/W	8	16	13	37
2004	S/S	10	2	8	20
	F/W	3	6	15	24
2005	S/S	·	2	9	11
	F/W	·	1	6	7
2006	S/S	2	3	5	10
	F/W	7	2	4	13
2007	S/S	3	2	1	6
	F/W	·	1	1	2
2008	S/S	3	·	1	4
	F/W	1	·	2	3
합계(n)		43	37	69	149
빈도(%)		28.9	24.8	46.3	100



<그림 9> 색상 배색 분석 분포



<그림 10> 연도별 색상 배색 분석

> 대조 > 유사 순 이었으며 유사 색상 배색은 적은 분포를 보였다. 05년은 대조 > 유사 순 이었고 동일 색상 배색은 없었다. 06년은 대조 > 유사 > 동일 순으로, 07년은 06년과 반대로 동일 > 유사 > 대조 순이었다. 08년은 동일 > 대조 순으로 나타나고 유사 색상 배색은 없었다. 대조 색상 배색은 6년 모두 나타났다고 동일 색상 배색은 05년을 제외하고 모두 보였고, 유사 색상 배색은 0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나타나 빈티지 패션의 색상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배색 분석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1>.

이상의 결과에서 S/S 시즌의 색상 배색은 대조와 동일이 많은 분포를 보였고 대조 색상 배색은 2005년에 동일 색상 배색은 2004년에 많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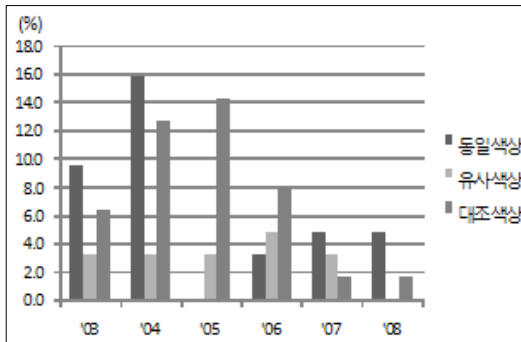
F/W 시즌의 연도별 색상 배색을 살펴보면 03년에 유사 > 대조 > 동일 순 이었고 04년은 대조 > 유사 > 동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조 색상 배색과 유사,

동일 색상 배색 간의 차이가 크게 났다. 05년은 대조 > 유사 순 이었고 동일 색상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06년은 동일 > 대조 > 유사 순 이었으며 07년은 유사 색상 배색과 대조 색상 배색이 같은 분포를 보이며 동일 색상 배색은 보이지 않았다. 08년은 대조 > 동일 순으로 나타났고 유사 색상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 색상은 6년 모두 보였는데 유사 색상은 08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나타났고 동일 색상은 05년과 07년에 보이지 않았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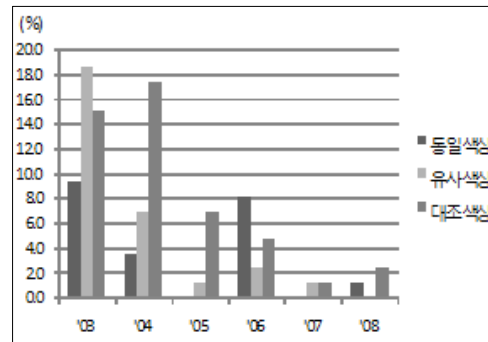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로 F/W 시즌의 색상 배색은 대조 색상이 가장 뚜렷하게 등장했고 특히 04년에 가장 많았다. 색상 배색의 예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9> 빈티지 패션의 시즌별 색상 배색 빈도

연도	시즌 배색	S/S				F/W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대조 색상	합계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대조 색상	합계
'03		6	2	4	12	8	16	13	37
'04		10	2	8	20	3	6	15	24
'05		·	2	9	11	·	1	6	7
'06		2	3	5	10	7	2	4	13
'07		3	2	1	6	·	1	1	2
'08		3	·	1	4	1	·	2	3
합계(n)		24	11	28	63	19	26	41	86
빈도(%)		38.1	17.5	44.4	100	22.1	30.2	47.7	100



<그림 11> S/S 시즌 색상 배색 분석



<그림 12> F/W 시즌 색상 배색 분석

<표 10> 색상 배색의 예

S/S 시즌			F/W 시즌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대조 색상	동일 색상	유사 색상	대조 색상
04 S/S Undercover	06 S/S Vivienne Westwood	05 S/S John Galliano	06 F/W Hermès	04 F/W dries van noten	04 F/W Junya Watanabe

- www.style.com

3) 색조 배색 분석

빈티지 패션의 색조를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에서 무채색과 유채색의 단색은 배색의 특징을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또한 명도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무채색 배색도 제외시켰으며 무채색+유채색 배색 중에서 유채색이 단색인 배색과 전체적인 색조를 보기에 무채색의 비중이 큰 것들은 색조를 분별하기 어려워 제외시켰다. 따라서 색조를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은 총 139벌의 작품이 분석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빈티지 패션의 색조를 기준으로 한 배색 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색조 배색 분석은 동일 색조 배색이 61벌의 43.9%로 가장 많았다. 유사 색조 배색은 동일 색조 배색과 비슷하여 60벌의 43.2%였고, 대조 색조 배색은 18벌 12.9%였다. 빈티지 패션의 색조 배색 분석은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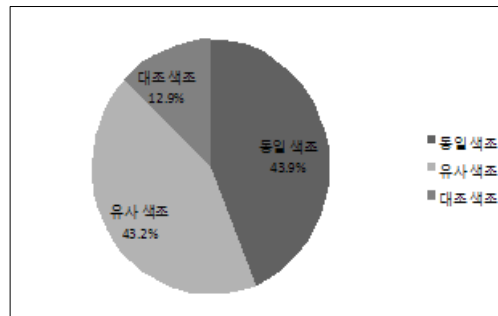
연도 별로 살펴보면 03년은 동일 색조 배색과 유

사 색조 배색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대조 색조 배색은 적은 분포였다. 04년은 동일>유사>대조 순이었고, 05년은 동일 색조 배색이 가장 많았으며 유사 색조 배색과 대조 색조 배색은 적은 분포였다. 06년은 유사>동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조 색조 배색은 출현하지 않았다. 07년은 유사>대조 순이었고 동일 색조배색은 없었으며 08년은 유사>동일 순으로 나타났고 대조 색조 배색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사 색조 배색은 6년 모두 보였으며 동일 색조 배색은 07년을 제외하고 모두 나타났고 대조 색조 배색은 06년과 0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나타났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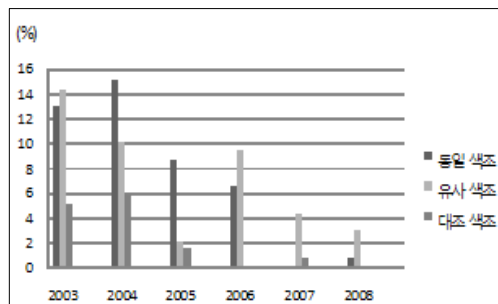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로 전체적인 빈티지 패션의 색조 배색은 동일 > 유사 > 대조 순이었는데 이는 색상 배색이 대조 > 동일 > 유사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반대 되는 현상으로 색상은 대조되지만 색조는 동일한 경향으로 많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1> 빈티지 패션의 색조 배색 빈도

연도	시즌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대조 색조	합계
2003	S/S	4	6	1	11
	F/W	14	14	6	34
2004	S/S	10	8	·	18
	F/W	11	6	8	25
2005	S/S	6	2	2	10
	F/W	6	1	·	7
2006	S/S	6	4	·	10
	F/W	3	9	·	12
2007	S/S	·	4	1	5
	F/W	·	2	·	2
2008	S/S	1	3	·	4
	F/W	·	1	·	1
합계(n)		61	60	18	139
빈도(%)		43.9	43.2	12.9	100



<그림 13> 색조 배색 분석 분포



<그림 14> 연도별 색조 배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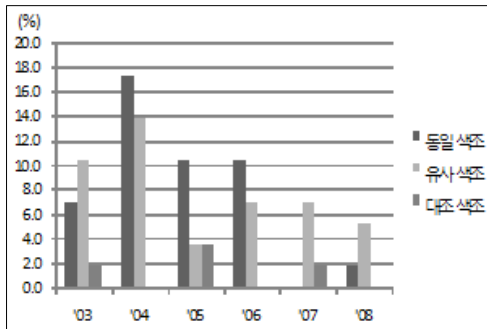
4) 시즌별 색조 배색 분석 결과

S/S 시즌의 색조 배색 분석은 동일과 유사 색조 배색이 각각 27벌씩 46.6%를 나타내었고 대조 색조 배색은 4벌로 6.9%를 보여 전체 색조 배색 분석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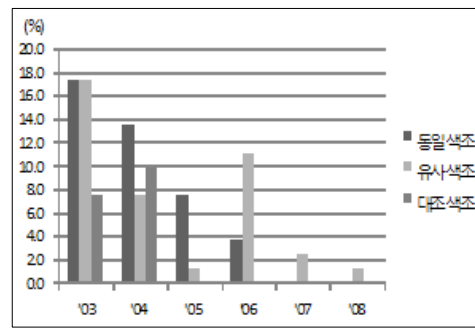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W 시즌의 색조 배색은 동일 색조 배색이 34벌 4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사 색조 배색은 동일 색조 배색과 비슷한 33벌로 40.7%를 보였고 대조 색조 배색은 14벌로 17.3%를 나타내어 전체와 비슷한 색조 배색 결과를 보였다<표 12>.

<표 12> 색조 배색 빈도

연도	S/S				F/W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대조 색조	합계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대조 색조	합계
'03	4	6	1	11	14	14	6	34
'04	10	8	·	18	11	6	8	25
'05	6	2	2	10	6	1	·	7
'06	6	4	·	10	3	9	·	12
'07	·	4	1	5	·	2	·	2
'08	1	3	·	4	·	1	·	1
합계(n)	27	27	4	58	34	33	14	81
빈도(%)	46.6	46.6	6.9	100	42.0	40.7	17.3	100



<그림 15> S/S 시즌 색조 배색 분석



<그림 16> F/W 시즌 색조 배색 분석

<표 13> 색조 배색의 예

S/S 시즌			F/W 시즌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대조 색조	동일 색조	유사 색조	대조 색조
					
05 S/S Undercover	04 S/S Junya Watanabe	07 S/S Balmain	03 F/W Dries Van Noten	06 F/W Junya Watanabe	04 F/W Undercover

<표 14> 빈티지 패션의 색상, 색조, 배색 분포

구분	색상	색조	배색
'03~'08 전체 경향	·R, YR, Y, PB 계열 에 밀집. ·G, BG, B 계열 미 비한 출현.	·무채색 white, black 계열과 유채색 의 grayish 계열 우세. ·무채색 계열은 고명도와 저명도에 집중. ·R, YR, Y의 난색계열과 PB의 한색 계열 모두 저채도에 집중.	·대조 색상 배색이 우세.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이 우세.
S/S 시즌 경향	·Y > PB > YR > R 순으로 우세. ·PB 계열 강세.	·W, Bk, p, g, dkg색조 우세. ·ltg 색조 적은 분포.	·대조 색상 배색과 동일 색상 배색 우세.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 우세.
F/W 시즌 경향	·R > Y > YR > PB 순으로 우세. ·R 계열 강세.	·W, Bk, ltg, g, dkg색조 우세. ·p 색조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	·대조 색상 배색 우세.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이 주를 이룸.

S/S 시즌의 유사 색조 배색은 매년 꾸준히 등장했으나 동일 색조 배색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모두 등장했고 대조 색조 배색은 6년 중 3년에만 나타난 경향을 보였다<그림 15>. F/W 시즌의 유사 색조 배색은 6년 모두 등장했으며 동일 색조 배색은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등장했고, 대조 색조 배색은 2003년과 2004년에만 등장했다<그림 16>.

이상의 결과로 S/S 시즌, F/W 시즌 모두 색조 배색 분포는 동일과 유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S 시즌은 2004년에, F/W 시즌은 2003년에 가장 많은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즌별 색조 배색 분석 결과는 전체 색조 배색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조 배색의 예는 다음 <표 13>과 같다.

이상의 색상, 색조 및 배색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V. 결론

본 연구는 친환경과 레트로 트렌드의 영향으로 패션계에서 두드러지는 유행 경향을 보이는 빈티지 패션을 대상으로 하여 색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빈티지 패션(vintage fashion)이란 ‘오래된 느낌’, ‘낡은 느낌’, ‘바랜 느낌’ 등의 이미지가 표현된 패션이다. 또한 중고 의상을 가리키거나 중고 의상을 즐겨 입는 경향-풍조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최근 트렌드에 있어 실제로 낡은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미지를 따른 패션 역시 빈티지 패션의 확장된 개념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빈티지 패션의 미적 특성은 수공예성, 진품 열망, 희소성, 낡음의 미학, 유희성, 재생, 재현성, 의외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미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는 2003년 S/S부터 2008년 F/W까지의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의 총 197장의 빈티지 작품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빈티지 패션의 색상, 색조, 배색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티지 패션의 색채 특성을 색상, 색조, 배색으로 구별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색상 분석 결과 전체적인 색상은 Y 계열과 YR, R, PB 계열이 많았고, G 계열과 B, BG 계열은 낮게 분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즌에 따라 보았을 때 F/W 시즌에는 R 계열의 난색이 많이 보였고 S/S 시즌에는 PB 계열의 한색이 많이 나타났다.

색조 분석 결과 전체 색조는 무채색에서 white, black 계열이 많이 보였고 유채색에서는 p, ltg, g, dkg 계열이 많이 나타났다. 명도는 무채색을 제외하고 골고루 분포 되어 있었으며 채도는 저채도에 집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고채도와 중채도의 빈도는 낮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시즌별 색조 분

포는 전체 색조 분포와 유사하였고, S/S 시즌은 W, Bk, p, g, dkg 색조가 많이 나타났으며 ltg 색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F/W 시즌은 W, Bk, ltg, g 색조가 많이 나타났고 p 색조가 다른 색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였다. 색상별 색조 분석의 결과 유채색에서는 R, YR, Y의 난색계열과 PB의 한색 계열 모두 저채도에 집중해 있는 반면, 무채색에서는 고명도와 저명도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색 분석 결과 색상 배색은 대조 > 동일 > 유사 순이었으며 S/S 시즌의 색상 배색은 대조 색상과 동일 색상이 많은 분포를 보였고 F/W 시즌의 색상 배색은 대조 색상이 가장 많았다. 색조 배색은 동일 > 유사 > 대조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S/S 시즌과 F/W 시즌 모두 동일 색조 배색과 유사 색조 배색이 많았다.

이 같은 색채 결과는, 빈티지 패션의 이미지가 선명하고 밝은 분위기 보다 흐릿한 '낡은', '바랜', '오래된' 이미지라는 특성을 잘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색에서는 대조 색상 배색과 함께 동일 색조 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대조 색상 배색이 많이 나타난 것은 '부조화적인 느낌', '의외성', '유희성' 등을 표현하는데 활용되는 반면, 동일 색조 배색이 많이 보인 이유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자연스런 낡음의 미적 특성'이 표현되어 서로 상반된 배색이 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빈티지 패션의 색채적 특성은 비교적 색상, 색조, 배색에 있어 통일된 현상으로 나타나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빈티지 패션의 디자인 특성이 정형화된 단순, 명료한 이미지가 아니며 비구축적이고 레이어링과 같은 복잡한 코디네이션의 특성이 색채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3년 컬러 트렌드의 일부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그 당시의 유행 경향인 빈티지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색채 분석 결과 나타난 빈티지 패션의 2003년과 2004년의 많은 출현 추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빈티지 패션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빈티지 패션에 나타난 색

채 특성을 규명하여, 빈티지 패션 연구의 다양화와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2003년 S/S부터 2008년 F/W까지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으로 한정하였고 색채 수집에 있어 액세서리나 장식 등이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1) 고현진(2001), "빈티지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482-484.
- 2) Charlotte Mankey Calasibetta(2001), *패어차일드 패션 대사전*, 박기완(역), 부산: 도서출판 노라노, p. 508.
- 3) 김혜경(2007),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파주: (주)교문사, p. 14.
- 4) 고현진, op.cit., p.290.
- 5) 이재정 · 박은경(2004),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도서출판 예경, p. 138.
- 6) "빈티지 패션", *NAVER 백과사전*, 자료 검색일 2009. 1. 28, 자료출처 <http://100.naver.com>
- 7) 김혜경, op.cit., p. 15.
- 8) 이형숙(2002.11. 5), "봄 꿈꾸는 에스닉과 럭셔리 빈티지", *문화일보*, 자료검색일 2009. 5. 20, 자료출처 <http://www.munhwa.com>
- 9) 김혜련(2003. 12. 4), "김혜련의 패션읽기 - 사랑의 전령 빈티지",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09. 5. 2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0) "발상의 자유, 믹스 & 매치(Mix & Match)", (2003. 8. 1), *주간한국*, 자료검색일 2009. 5. 2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1) 김혜수(2003. 4. 9), "구김웃으로 스타일 퍼세요. 자연스러운 멋 유행", *한국경제*, 자료검색일 2009. 5. 25,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2) "2003/2004년 추동 패션 소재 트렌드", *아이에프네트워크*, 자료검색일 2009. 5. 21, 자료출처

- http://www.appnews.co.kr
- 13) 최경희(2008. 11. 29), “니트웨어의 네오 빈티지 룩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177.
 - 14) 고현진, op. cit., pp. 485-487.
McRobbie(1999), *A., Zoot Suits and Second-hand Dresses*, London: Macmillan, p. 29.
 - 15) Ibid., p. 486.
 - 16) 임지완·박민여(2007), “국내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빈티지(vintage)에 관한 연구 -2001년 F/W~2006년 S/S까지-”, *복식문화연구*, 15(3), p. 407.
 - 17) 황경혜(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유희적(遊戱的) 빈티지(Vintage)”,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58.
 - 18) 김종실(2007), “레이스를 재활용한 빈티지드레스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40.
 - 19) 김근정(2008), “빈티지(Vintage)의 개념 및 특성을 반영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56.
 - 20) 최경화(2007), “빈티지 패션 제품 디자인 연구 -로맨틱·내추럴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153.
 - 21) 권혜숙(2008), “최신 여성 패션에 나타난 세퍼레이션 색채 코디네이션의 특성 - 2004 S/S부터 2008/9 A/W까지 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색채 배합, 색상 조화, 분리색을 중심으로 -”, *패션비즈니스*, 12(5), pp. 94-110.
 - 22) 김지영·김지연(200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일분풍 에스닉 룩의 색채 특성 - 2004년 S/S부터 2008년 F/W까지 -”, *한국의류학회지*, 32(11), pp. 1750-1759.
 - 23) 김지연(2008), “한·일 전통극의 색채문화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32(10), pp. 1629-1639.
 - 24) 권지현·김영인(2008), “현대 여성 수트에 있어서 남성성(masculinity)을 나타내는 색채 특성”, *복식*, 58(2), pp. 62-77.
 - 25) 황경혜, op.cit., pp. 1-58.
 - 26) 김종실, op.cit., pp. 1-40.
 - 27) 김근정, op.cit., pp. 1-56.
 - 28) 최경화, op.cit., pp. 1-153.
 - 29) 임지완·박민여, op.cit., pp. 405-419.
 - 30) 이지현·정은숙(2004), “TV 드라마 의상에 나타난 스타일에 관한 연구 :드라마 ‘Sex & The City’를 중심으로”, *복식*, 54(2), pp. 25-38.
 - 31) 한주현(2005), “TV 드라마 의상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 : ‘파리의 연인’을 중심으로”,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8.
 - 32) 김길라(2006), “비비안 웨스트우드 디자인 연구 :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25.
 - 33) 이상희(2006), “마크 제이콥스 작품에 나타난 보보스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7.
 - 34) 김은정(2005), “손뜨개 이미지의 니트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5.
 - 35) 최경희(2005), “현대 여성 니트웨어 디자인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1995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130.
 - 36) 박수민(2006),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패션디자인 특성 분석 : 로하스(Lohas)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4.
 - 37) 고현진, op.cit., pp. 482-493.
 - 38) 정윤주(2007), “국내 온라인 빈티지 쇼핑물 패션 디자인 분석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81.
 - 39) 최경화, op.cit., pp. 1-153.
 - 40) 김현영·손경애·여화선(2004), *color color color*, 도서출판 예경, p. 59.
 - 41) 김영경·여상미·박미애(2004), *Color Revolution*, 형설출판사, p. 27.
 - 42) 김현영·손경애·여화선, op.cit., p. 60.
 - 43) 윤혜림(2008), *색채지각론과 체계론*, 도서출판 국제, p. 96.
 - 44) 조현주·이광훈·정혜민(2006), *쉽게 이해하는*

- 색채학, 시그마프레스, p. 29.
- 45) Ibid., p. 39.
- 46) 김영경 · 여상미 · 박미애, op.cit., p. 23.
- 47) 박혜원 외(2006), *현대 패션 디자인*, 파주: (주) 교문사, pp. 29-33.
- 48) 김지영 · 김지연, op. cit., pp. 1750-1759.
- 49) 김지연, op. cit., pp. 1629-1639.
- 50) 권지현 · 김영인, op. cit., pp. 62-77.
- 51) 김미진 · 김연희 · 김혜수(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청색의 배색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1(3), pp. 45-56.
- 52) 정삼호(1990), “성인 여성의 직물표본에 의한 색채 선호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간의 비교 연구”, *가정문화논총*, 4, pp. 55-74.

접수일(2009년 8월 3일)

수정일(1차 : 2009년 9월 2일)

게재확정일(2009년 9월 7일)